

지역 소식 통

김제 금산면 계룡경로당

2026년 모범경로당 선정

김제시는 대한노인회 김제시 지회(지회장 강병진)가 7일 금산면 계룡경로당에서 2026년 대한노인회 모범경로당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대한노인회 김제시 지회 임원과 경로당 회원, 시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계룡경로당의 모범경로당 선정을 축하했다.

행사는 모범경로당 인증서 수여를 시작으로 현관 제막, 축하 인사발송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사)대한노인회가 선정하는 모범경로당은 경로당의 투명한 운영과 회원 간 화합,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기여도 등 경로당 운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된다.

계룡경로당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쾌적한 시설환경을 유지하고, 상호 존중과 화합,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등 모범적인 경로당 운영 문화를 실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지평선축제, 유학생 글로벌 서포터즈 유착

김제시가 대한민국 명에 문화관광축제인 ‘김제지평선축제’의 글로벌 홍보 저변 확대와 채널 다변화를 위해 적극 나섰다.

시는 전북대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제28회 김제지평선축제 SNS 글로벌 서포터즈를 구성하고, 축제 개최 전 두달간(2026년 8~9월) 본격적인 온라인 사전 홍보에 돌입했다.

이번 서포터즈 모집은 전북대학교 국제협력과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진행됐으며, 시는 열정적인 참여 의지를 보인 9개국 14명의 유학생을 서포터즈로 앞서 지난 5일 최종 선정·위촉(서면진행)했다.

서포터즈는 본인 소유의 SNS를 활발히 운영 중이거나 영상·사진 편집 능력을 갖추고 있는 유학생들로 구성됐다. 앞으로 본인 SNS 계정에 김제지평선축제 소개 자료를 업로드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경로를 활용해 축제 정보를 국경 없이 공유하는 민간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주요 도로변 꽃길 비상급수 총력

김제시는 최근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과 극심한 가뭄 속에서 주요 코스모스 꽃길 및 단야의 자생선 꽃정원 등을 지키기 위해 비상급수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김제 지역은 최고기온이 36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지속되는 반면 강수량이 극히 부족해 주요 도로변 코스모스 등 경관 자물들이 생육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급수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폭염과 가뭄이 해갈 될 때까지 비상급수와 현장 관리를 늦추지 않을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일 정호근 도시건설국장은 단야의 꽃 정원 코스모스 꽃밭 전체 현장을 찾아 급수 작업 진행 상황과 폭염·가뭄 피해 현황을 직접 꼼꼼히 살펴며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새만금신항, 법과 원칙으로 결정해야”

김제시는 새만금신항 매립지 관할과 관련해 종전 해상행정 관행이나 과거 해역 이용관계만으로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새만금신항 관할은 과거 해당 바다를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했는지를 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공유수면 매립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보지가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지를 결정하는 사안이다.

대법원의 지난 새만금 방조제 판결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 매립지 관련 여러 결정에서도 종전 해상경계나 역사적 관행만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지 않고, 매립지와 인접 지방자치단체 간 연결 형상과 접근관계, 주민편의와 행정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일관되게 제시해 왔다. 그리고 새만금 신항이 방조제 외곽에 조성된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판단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매립지가 방조제 안쪽인지 바깥쪽인지가 아니라, 관할결정 대상이 신규 공유수면 배위지라는 점과 어느 지방자치단체와 직접 연결되고 어느 배후지역과 하나의 이용체계를 형성하는지 여부다.

#신항의 접근축과 배후지역은 김

신항·2호 방조제 등으로 이어지는 김제권 배후축 뚜렷 대승적 협력 외면한 지역별 나눠먹기식 관할 배분은 안 돼

제권으로 연결 새만금신항은 진입도로를 통해 김제시 관할인 새만금 2호 방조제와 직접 연결되고, 다시 동서도로와 스마트 수변도시, 새만금 내부개발지역으로 이어진다. 이 연결축은 화물차량과 한탄종사자, 입주기업의 이동뿐 아니라 기업지원, 교통, 환경, 재난, 정부 등 실제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공간이다. 특히 스마트 수변도시의 새만금신항과 연계해 정주·기업지원·물류·상업·생활서비스 및 행정지원 기능을 담당할 배후도시로 조성되고 있다.

새만금신항은 수변도시와 복합개발용지, 농생명용지, 신업지역에서 발전하는 물동량을 처리하고, 이 배후지역, 특히 수변도시의 신항 운영에 필요한 기업·인력·생활·행정서비스를 지원하는 상호의존적 관계를 형성한다.

따라서 신항 관할은 항만시설만을 바다 위에 부둣해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진입도로와 제2호 방조제, 동서도로, 수변도시 및 내부개발지역으로 이어지는 공간적·기능적 연결체계 안

에서 판단해야 한다. 신항과 배후지역의 관할이 분리되면 진입도로 관리, 환경미원, 재난 대응, 기업지원과 생활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행정주체가 이원화돼 통합적인 개발과 행정서비스 제공에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

#대승적 협력을 외면한 나눠먹기식 관할 배분은 안 돼

김제시는 지금까지 새만금 3개 시·군 가운데 가장 적은 면적의 관할을 결정받았다. 최근 김제시 관할로 결정된 지역도 스마트 수변도시를 제외하면 동서도로와 방수제 등 대부분 도로 기능을 수행하는 선형 기반시설에 불과하다. 이를 두고 김제시가 새만금의 주요 개발지역을 과도하게 차지했다거나 이미 충분한 몫을 배정받았다고 보는 것은 실제 관할 현황과 토지의 성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주장이다.

그럼에도 김제시는 새만금의 조속한 개발과 전폭 전체의 발전을 위해 다른 지역과 연결한 매립지의 관할결정 신청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대승적으

로 협조해 왔다. 군산시와 연결한 새만금 1권역에서는 새만금산업단지 1·2공구가 2016년, 5·6공구가 2022년, 3·7공구가 2025년 각각 군산시 관할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또한 부안군과 연결한 새만금 3권역의 세계스카우트캠퍼리 부지가 2023년 부안군 관할로 결정될 때에도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힘조했다. 이는 김제시가 새만금 매립지를 지역별로 나눠 갖는 대상으로 보지 않고, 각 매립지의 연결관계와 전체 관할구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존중해 왔음을 보여준다.

반면 인근 지방자치단체들은 향후 새만금신항 관할권 확보를 염두에 두고, 이미 대법원 판결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정립돼 온 연결성 및 전체 관할구도의 부합하지 않는 이의를 제기해 왔다. 그 결과 법과 원칙에 따라 정리될 수 있었던 매립지 관할 문제가 반복적인 분쟁으로 확대되고, 새만금 개발의 불확실성만 커졌다.

그런데도 김제시가 동서도로와 스마트 수변도시 등의 관할을 결정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새만금신항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은 형평의 논리라고 보기 어렵다. 김

제시가 관할을 결정받은 지역은 지역적 인배나 배려의 결과가 아니라 지리적 연결성, 접근관계, 토지이용계획, 전체 관할구도와 행정효율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다.

특히 수변도시를 제외한 최근 관할 결정 지역 대부분이 도로와 방수제 같은 기반시설이라는 점을 외면한 채, 이를 김제시가 이미 충분한 개발이익을 확보한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된 기존 관할을 지역별 몫으로 훼손해 새만금신항을 다른 지역에 배분한다면, 매립지 관할결정을 사실상 지역 간 나눠먹기 수단으로 변질시키게 된다.

군산항의 물동량 감소나 지역경제의 어려움 역시 항로 준설, 시설 개선, 항만기능 재편과 신규 물동량 확보 등 국가 항만정책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새만금신항 관할을 군산시에 부여하기 위한 판단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김제시는 그동안 다른 지역과 연결한 매립지의 관할결정에 대승적으로 협력해 온 것과 마찬가지로, 새만금신항 역시 정치적 인배나 지역별 몫의 배분이 아니라 실제 연결관계와 배후지역의 기능적 연결성, 행정효율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제=곽노태기자

완주 상관우체국 행정복지센터로 이전

정부 공공공간 공동활용 모델 구축… 행정·우정서비스 한 곳에서 편리하게

완주군 상관면 행정복지센터에 상관우체국이 들어서며 행정·우편·금융을 한곳에서 처리하는 원스톱 공공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10일 군은 신청사 입점을 기념하는 개국식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유희태 완주군수와 구본준 전북지방우정청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관우체국의 새 출발을 축하하고 시설을 둘러봤다.

이번 사업은 완주군과 전북지방우정청이 협력해 추진했다. 정부의 지방정부 공간 내 우체국 공동이용 정책에 발맞춰 기존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주민 편의를 높이고자 진행했다.

상관면은 완주군에서 처음으로 행정복지센터와 우체국의 공간 공동활용 모델을 도입하며 지역 맞춤형 행정혁신의 첫 사례를 구축했다.

상관면은 주민 이용이 많은 행정복지센터 1층 공간을 우체국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존 예비군 중대본부를 3층으로 옮기고 공간을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들은 행정 민원은 물론 우편과 금융 업무까지 한 장소에서 처리하는 편의를 누릴 수 있게 됐다.

복지·행정·우정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공공시설 운영 효율도 끌어올릴 전망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상관우체국 이전은 단순히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넘어 행정과 우정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새로운 공공서비스 모델을 구현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일상에서 행정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본준 전북지방우정청장은 “완주군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었기에 편리하고 쾌적한 우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주민 삶에 도움을 주는 우정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의 러닝 코스 매력에 흠뻑’

대한민국 No.1 러닝 미디어 ‘클루’와 ‘트레일 헌터 in 김제’ 성료

김제시는 2026 BETTER in 인구감소 지역 관광인구 충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관광 스타트업 문카데미(클루)와 함께 트레일 헌터 in 김제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관광 벤처기업의 유망한 아이디어를 지역에 실증해 생활 인구를 증대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지역 상생형 프로젝트다.

시는 한국관광공사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진행되는 이 사업을 위해 지난 공모에서 문카데미를 포함한 총 7개의 관광 스타트업을 선정해 실증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중 문카데미는 약 9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국내 러닝 전문 인스타그램 미디어 1위 채널 ‘클루(CLUTOO)’를 운영하는 기업이다. 문카데미는 ‘날릴 수록 머무르게 되는 김제를 위한 로컬 스포츠 관광 프로그램 실험’을 목표로, 김제의 자연과 관광자원을 연결한 체

류형 트레일 러닝 런트립을 기획했다.

이번 프로젝트의 첫 단계인 1회차 파일럿 테스트 ‘트레일 헌터 in 김제’ 행사는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1박 2일간 진행됐다. 행사에는 14명의 트레일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해 김제의 코스들을 달리고 평가했다.

참가자들은 김제 축산에 베이스캠프를 두고, 1일 차에는 광활한 평야를 자랑하는 ‘새만금 비탈길’ 코스 약 10km를 달리며 코스 난이도와 매력도를 검증했다.

이어 2일 차에는 숲길과 마을길 중심의 ‘금구 명품길’을 답사해 초보자 수용 가능성 및 코스 다양성을 점검했다.

한편 이번 소규모 파일럿 검증 이후 2회차에는 검증된 코스를 바탕으로 커뮤니티 러너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김제 메인 런트립으로 확장 운영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성중기완주군의의회 의장, 운주면 블루베리농가 찾아 소통

블루베리연구회와 현장간담회…재배기술·가공산업·판로 확대 등 발전방안 논의

완주군의회 성중기 의장이 지난 7일 운주면 장신리 일원의 블루베리 농가를 찾아 완주군 블루베리연구회 회원들과 현장간담회를 갖고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블루베리 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완주군 블루베리연구회 회원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성 의장은 농가를 직접 둘러보며 재배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블루베리 재배 과정에 서 축적한 경험과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며, 특히 래빗이(Rabbiey) 품종의 병해충 예방관리 기술과 안정적인 재배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또한 상품성이 떨어지는 비상품과를 가공용 원료로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안과 함께, 블

루베리 가공품 개발을 통한 상품 다양화, 인건비 절감 방안 등 농가 소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의견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농가 경영을 위한 재정적 지원 확대와 유통망 및 판매 루트 다변화 등 블루베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도 함께 논의됐다.

/완주=염재복 기자

완주군, 극한 폭염 속… 외국인 계절 근로자 안전 지키다

모국어 안내문 배포·식염포도당·햇빛 가리개 등 전달



완주군이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관내 농가에서 일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현장 밀착형 폭염대응 안전관리 점검에 나섰다.

지속되는 폭염특보에 대응해 군은 관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를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과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일제 점검을 펼쳤다.

주요 점검 내용은 폭염 피크 시간대 규칙적인 휴식 부여, 기상 상황에 따른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준수 여부다. 아울러 작업 중 충분한 수분과 식염수 제공, 안전 장구 지급, 작업장 인근 그늘막 등 휴게시설 설치 여부를 살폈다.

이와 함께 온열질환 환자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 구축

상태를 확인하고 근로자 숙소 내 에어컨과 선풍기 등 냉방기 정상 작동 여부, 샤워 시설 구비 상태를 면밀히 점검했다.

특히 완주군은 언어 장벽으로 안전수칙을 숙지하기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를 배려해 캄보디아어, 베트남어 등 국가별 모국어로 제작한 ‘폭염 대비 안전수칙 안내문’을 현장에서 직접 배포했다.

또한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식염포도당과 햇빛 가리개, 물티슈, 물타월 등 필수 예방 물품을 긴급 전달하고 현장 지도를 병행했다.

최정혁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일손 부족을 해결해 주는 소중한 농업 동반자”라며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폭염 속에서 근로자들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행정 지원과 점검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제32회 김제시 시민의 장 후보자 모집

총 6개 분야… 21일까지 접수

김제시는 오는 21일까지 제32회 김제시 시민의 장 후보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2회째를 맞이하는 김제시 시민의 장 선발 분야는 △문화장, △산업장, △공익장, △효열장, △체육장, △애행장 총 6개 분야다.

추천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3년 이

상 김제시에 거주한 시민이거나 3년 이상 김제시에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 또는 등록기준지가 김제시인 사람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

자료를 구비해 오는 21일까지 시청 행정지원과(☎540-3383)로 제출하면 된다. 시상은 오는 10월 1일에 열리는 제28회 김제지평선축제 개막식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민, 구이 ‘아쿠아파크 아마존’ 입장료 20% 할인

완주군민은 구이면에 위치한 레저 시설 ‘아쿠아파크 아마존’ 이용 시 입장료 20%를 할인받는다.

지난 8일 완주군은 아마존 아쿠아파크 세미나실에서 유희태 완주군수와 아마존 대표이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완주군민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매년 심해지는 무더위 속에서 군민들이 관내 휴양 시설을 부담 없이 이용하도록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관내 기업과의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자 이번 협약을 진행했다.

협약에 따라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은 누구나 입장료 할인 혜택을 누리게 된다. /완주=염재복 기자